기술인재 · 기업인의 만남

도교육청 앞마당서 행사

특성화고 등 28개 고교 참가

29개 학교홍보부스 운영

전북 특성화고 학교교육과정 및 특색사업을 홍보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인과의 만남의 장이 열리는 '2017년 특성화고 기능인재 한마당'이 2일부터 3일까지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특성화고 기능인재 한마당'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 취업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우선 도교육청 앞마당에 학교별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28교 29개 학교홍보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농업·공업·상업계열 학교별 담당교사가 직접 참가하는 도내 특성화고 진로상담 및 입시설명도 진행된다.

40개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준비한 특성화고 창업동아리 창업아이템 발표 시간과 특성화고 졸업생과의 토크콘서트도 마련된다.

3일에는 특성화고 입학 후 학교생활 및 취업준비 내용을 발표하는 특성화고 기능인재 셀프 마케팅도 실시한다. 3분 이내의 PPT 발표를 하고 행사장을 찾은 중학생들이 직접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한마당에는 도내 중학생 8백여명이 참여하여 홍보부스 관람 및 진로 상담, 창업아이템 및 셀프마케팅 평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2일에는 한국치즈과학고 주관으로 유관기관 및 기업인 초청 오찬이 열린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등 14개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며 한국치즈과학고 조리과학과 학생들이 프로젝트수업으로 오찬을 준비하여 함께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성화고 기능인재 한마당은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 발표, 셀프 마케팅 등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행사로 마련되었다"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정해은 기자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박차

전주 효천초 신설 · 군산 동산중 이전 추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시 2020년 개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개발지구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내달 중에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전주효천도시개발구역 내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설립안과 군산동산중학교 이전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는 전주효천도시개발구역 내 4512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서 총 41학급 규모(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유특수1학급)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경우 2020년 3월 개교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산시는 중학교 12교 중 9교가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중학생의 약 66.1%가 신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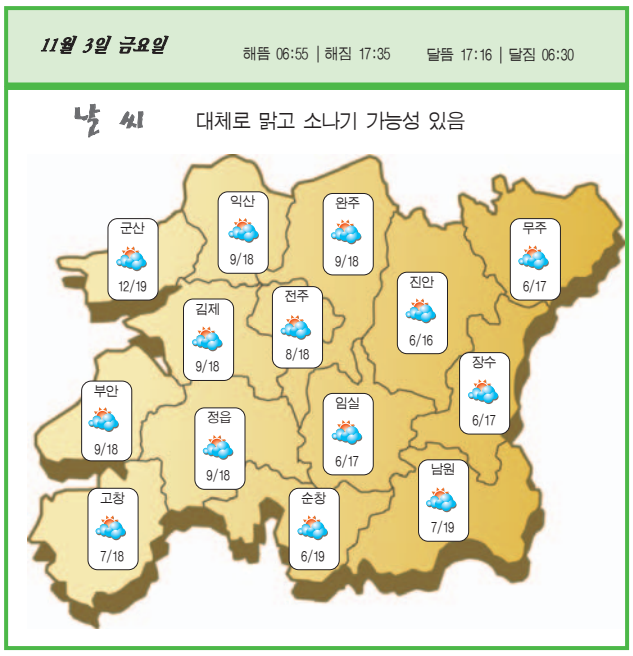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과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군산시 중학교 통학여건 개선 등을 위해 원도심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 군산동산중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이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학부모 및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군산동산중학교를 이전대상학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원도심(금동)에 15학급 규모로 운영중인 군산동산중학교를 신도심지역인 지곡동으로 이전(25학급, 특수1학급 포함)할 계획이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학교이전이 이루어지면 군산시 중학교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산동산중학교가 이전되면 현 동산중학교 건물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한 교육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대학생, 학술봉사활동 요원으로 '변신'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지원

참가자 국제학회 몸소 경험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은 최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열린 '세계 무형문화유산포럼'을 적극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은 최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열린 '세계 무형문화유산포럼'을 적극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포럼을 공식 후원한 전북대 LINC+사업단은 이 행사에 학생들을 학술봉사활동 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포럼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사업단이 이 포럼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것은 행사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해봄으로써 소통과 배려심,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특히 고고문화인류학과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포럼을 통해 관련 학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제 학술대회를 몸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 참여 학생들도 큰 만족감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 연구원들 주관으로 26일까지 진행되는 '도시의 정령들-장소의 영에 대한 치앙마이의 신앙을 보여주는 의식, 공예 그리고 공연' 전시에 작품 프린트 및 배치 등을 주도하면서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와 교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도 보냈다.

고영호 단장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전통문화와 세계의 조우를 직접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스타일과 R&BD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시가 공동주최하고 무형문화연구원이 주관한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에서는 도시에서 전승 또는 이동된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자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기존 담론을 신중히 검토하고 도시에서 나타나는 무형유산의 기능과 의미를 재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무형문화유산이 도시의 미래자산임을 재확인하는 전주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정해은 기자

에코시티 중학생 등하굣길 편해질까

전주교육지원청 · 전주시 등 통학차량 지원 업무협약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1일 전주시, 에코시티 공동주택 개발시행사인 (주)에코시티개발, ㈜포스코건설, (유)한백종합건설, 상명에코개발(주) 등 4개 시행사와 에코시티에 입주할 중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에코시티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중학교 개교(가칭 화정중 2020년 3월 개교예정) 시기 불일치로, 유입 학생들을 개교 전까지 송천동 인근 중학교로 분산 배치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전주시는 송천동 인근 중학교(오송중, 솔빛중, 전주중, 용소중)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통학시간대 노선 확충에 노력하고 전주교육지원청은 통학차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 및 관리하며 에코시티 공동주택 개발시행사는 통학차량운영을 위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에코시티 개발시행사들은 중학생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의무가 없음에도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번 협약에 참여하여 에코시티 내 중학교가 개교할 때까지 2년간 통학차량 운영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2018년도 입주예정 시행사들이 참여했고 2019년도 입주예정 공동주택 개발시행사는 향후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에코시티에 입주하게 될 중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은 기자

'소년법 폐지' 당사자 생각 듣는다

전북대 진수당서 4일 ~ 5일

도내 고교생 토론대회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와 전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대 신문방송학과가 주관하는 '2017 전북고등학생 토론 한마당' 토론대회가 오는 4~5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 한마당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6주에 걸쳐 120여명의 학생들과 토론 성찰, 토론 구조, 토론분석, 비판적 사고 훈련 등을 주제로 토론교육을 진행한 이후 열리는 것.

3인 1팀으로 구성돼 모두 40팀이 지원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친다.

권혁남 대회 조직위원장 "앞으로도 토론한마당이 갈등해결을 위한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